

# 데스크시각

김재열



새 정부 출범 이후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답답함을 감출 수 없다. 산적한 지역 현안들이 겹겹으로 깔려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광주의 대표적 현안인 문화수도 건설은 문화관광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외되는 수모를 겪었다. 한 때 조성위원회 폐지가 거론됐는가 하면 사업을 추진할 실무 부서인 문화중심도시 추진단 축소가 논의되는 등 대책 사업으로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 여전한 '규제 전봇대'

전남도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기업도시들은 새만금에 밀리고 있다. 새만금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별도의 태스크 포스트팀이 꾸려지는 등 새 정부가 관심을 갖고 챙기고 있다.

한 때 화제가 됐던 대불국가산단 전봇대 달린 것이 없다. 일부 전봇대만 뽑혔을 뿐 비좁은 도로와 교량의 하중 한계를 훨씬 초과한 과도한 선박 블록 운송은 시정되지 않고 있다. 리모델링에 필요한 2천600억원대의 예산 자원에 법 규정과 타

권 공장 총량제 폐지에 팔을 걷어 붙였다. 경제 살리기와 국가 경쟁력 제고를 명분으로 수도권 공장 신·증설이 허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참여정부 핵심 정책이었던 국가균형발전 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명박 정부가 사업내용과 기능이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전면 통·폐합하는 등 대대적인 수정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균형발전이 중요 국가시책이었던 노무

# 4·9 총선 이후 광주·전남

공당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관계 부처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탓이다.

선거 때면 으레 지역발전론을 다짐하는 다양한 공약이 쏟아져 나온다.

이번 18대 총선에 예외는 아니다. 공천이 너무 촉박하게 진행돼 정책선거가 실종됐다고는 하나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할 것 없이 지역발전 공약을 쏟아냈다.

양당의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모두

80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광주·전남의 1년 예산 총액이 7조원대인 현실에서 실제 정책에 반영될 공약은 손으로 꼽을 정도다. 공약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는 주민들도 찾아보기 힘들다.

발췌부터 총선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용을 중시하는 집권 여당이 제1당을 차지할 경우 광주·전남은 더욱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팽배해 있다.

이미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와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수도

현 정부 시절에도 어려움을 겪었던 전남을 비롯한 농촌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과거처럼 지역균형발전을 주장하며 목소리만 높이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광주·전남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최대한 확보해 투자를 이끌어내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 중앙과 연결 통로 찾아야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역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던 18대 총선 선거전이 막을 내렸다. 통합민주당 내부의 힘겨운 공천 과정을 거쳐 여의도에 입성하게 됐던, 무소속 돌풍으로 당선됐던 지역 출신 금백지들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분야는 현안 사업의 조속한 실현이다.

중앙정부와 마땅한 연결 통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광주·전남 입장에서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분야는 현안 사업의 조속한 실현이다.

중앙정부와 마땅한 연결 통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광주·전남 입장에서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분야는 현안 사업의 조속한 실현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 시설

## 투표는 권리이자 의무, 기권만은 안 된다

오늘은 제 18대 총선 투표일이다. 10년 만의 정권교체 이후 4개월여 만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의 의미는 적지 않다. 향후 4년간 국정운영을 책임질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만큼 노무현 정부와 출범 4개월여의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가 복합돼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총선의 이슈는 '안정론'과 '견제론'이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안정적 국정 수행을 위해서는 과반 의석이 절대 필요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통합민주당 등 야당은 독선과 오만으로 일관한 이명박 정부를 견제할 강력한 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심의 향방은 오늘 밤 드러난다.

선거 관세는 안갯속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막판까지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절반에 이르고 있다. 후보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총선 선거구도 최저 60여 곳에서 최고 90여 곳에 달한다. 투표율에 따라 당락이 뒤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문제는 투표율이다. 중앙선거위원회는 이번 총선이 사상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선관위의 조사 결과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유권자는 63.4%로 17대 총선 때의 77.2%보다 크게 떨어졌다. 실제 투표율은 50%대 초반에 그치고, 최악의 경우 50%를 밑돌 것이라는 분석이다.

투표율이 낮으면 민심을 왜곡하는 선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지역구 당선자가 절반만 득표해도 투표율이 50%대에 머물면 유권자의 4분의 1 수준의 지지 밖에 받지 못해 대표성에 한계를 갖게 된다. 진정한 지역의 대표이자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투표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이자 의무다. 민심은 유권자들의 한 표 한 표가 모여 형성된다. 국민들은 '견제론'과 '안정론' 어느 쪽이든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할 필요가 있다. 유권자 모두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 기대되는 호남 광역경제권 공동 육성

광주시와 전남·전북도가 호남 광역경제권을 공동육성하기로 했다.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구상에 맞춰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바이오식품, 광(光)산업 등 6개 산업을 호남권 공동 육성사업으로 선정할 것이다. 호남 광역경제권 육성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개별 지자체 차원의 지역경제 활성화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호남권 3개 시·도는 공동 육성사업의 윤곽이 드러남에 따라 호남 광역경제권 산업활성화 전략 초안을 마련해 이를 정부에 제출하고 연말까지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6개 공동 육성사업은 나뉘도록 각 지역별 산업특성과 비교우위 측면을 갖고 있어 제대로 시행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호남 광역경제권 공동 육성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호남권은 5대 광역경제권 가운데 GRDP(지역 내 총생산)과 제조업 고용, 지방세

등 경제력이 가장 열악해 정부의 특별 지원이 필요하다. 호남권 3개 시·도의 경제력으로는 광역경제권 사업의 자원 마련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역간 재정상황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광역경제권은 오히려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

특히 정부가 광역경제권 육성을 명분으로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무분별하게 완화할 경우 호남 광역경제권 활성화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정부의 5+2 광역경제권을 결국 6+1(수도권) 광역경제권으로 바꿔 수도권 집중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광역경제권 육성은 지역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본질에 충실하게 추진돼야 한다.

광주와 전남·북을 아우르는 호남 광역경제권은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없다.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함께 지역 경제, 연구기관, 지자체가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은펜클럽

송민석



새 학년이 시작되는 3, 4월은 학생·학부모·교사 모두에게 신선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달이다. 새로운 사람과 만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은 가슴 부풀 이지지만, 한편으로 긴장되는 일이다. 새 학년이 되어 새로이 맞이하는 담임 선생님, 새로운 교과 선생님, 새로운 친구 하나하나가 큰 설렘으로 시작된다.

바쁘고 어수선함으로 가득한 3월의 끝자락이던 으레 각급 학교의 '학부형 총회'가 열린다. 참여율이 90%를 웃도는 열기 속에 기대에 찬 눈빛으로 '교육활동 안내서'를 꼼꼼히 챙기고, 한마디

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자.

셋째, 자녀 건강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종일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의 건강은 학부모의 보살핌에 크게 좌우된다. 특히 경미한 코감기 증세는 비염, 축농증으로 발전하여 학업의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넷째, 담임교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자녀의 조그만 변화에도 담임교사와 상담하도록 하자. 담임교사를 제치고 무조건 교장실로 통화하는 것은 순리가 아니며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 양계장 닭이 아닌 토종닭처럼 키우자

도 놓치지 않겠다는 자세로 기록하고, 교장실로 문의전화까지 하는 열정이 대단하다.

갖 입학한 고등학교 신입생들은 중학교와 달리 보충, 심화, 자율학습, 논술지도 등 학습량이 절대적으로 많아진다. 또 정규교과 외에 각종 모의고사, 연합평가, 영어듣기평가 등 시험 횟수가 대폭 증가해 심적 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이른 아침부터 밤 늦도록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이 크게 달라진 점이자 고충이다.

교육은 부모가 중심이 아니라 학생이 중심이어야 한다. 따라서 고등학교 신입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새로운 시작과 함께 다음 몇 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자녀를 믿고 신뢰하여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해 주자. 지나친 간섭은 부담감을 주어 자율성을 위축시킬 뿐이다. 둘째, 남과 비교해서 자녀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도록 하자. 잦은 시험결과

다섯째, 부모가 학생의 소질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친 기대를 앞세우지 말자. 무조건 열심히 공부하여 1등만을 고수하기보다는 먼저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능력을 개발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여섯째, 자녀와 자주 대화시간을 갖도록 하여 자신감을 키워주고, 결과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과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도록 지도하자.

발돋움도 학교에서 생활하는 고등학생의 경우 운동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현명한 부모라면 등굣길에 교통이 혼잡한 비좁은 교문 앞까지 차를 태워오지 말고, 큰 길에서 내려 잠시라도 걷기 운동을 시키도록 하자.

과잉보호 속에 지나치게 청결하게 키운 아이일수록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져 아토피성 피부염에 잘 걸린다고 한다. 우리 자녀들을 양계장 닭이 아닌 토종닭처럼 키우야 함을 잊지 말자.

(여천교 교장·수필가 2006년 12월 수상자)

은펜클럽은 매월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자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실는 코너입니다.

## 가족번호 자원화시설 인·허가 지나치게 까다롭다

농촌 축산농가의 가족번호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약취 때문에 축산 번호가 힘들고 인근 주민들도 고충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가 가족번호 공동자원화 사업이다. 이는 자연순환농법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인·허가 과정이 까다로우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 사업의 주무 부서인 일선 시·군 축산과는 가족번호 공동자원화 시설의 인·허가 권한이 없으며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농지과에서는 농지보전을 이유로 인·허가를 쉽게 해주지 않는다. 여기에 환경과는 6개월씩 저장시설 설치를 해야 한

다는 규정을 요구하고, 건축과는 자원화시설이 아닌 분뇨처리시설로 허가하는 경우까지 있다.

이렇게 까다롭고 절차도 복잡해진다거나 인·허가 부서가 여기저기 나뉘어져 있다보니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가족번호 공동자원화 사업은 환경정화와 분뇨자원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혐오시설이라고 기피하거나 막으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 축산업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접근, 인·허가를 간편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승열·전남 목포시 옥암동

# 기고

유태명



아름다운 산책로 하나가 삶의 문화를 바꾸고 지역의 존재가치를 드높이는 경우를 흔히 본다. 그래서 필자는 다른 지역을 방문할 때면 언제나 그 지역의 행정문화는 물론 지역민들이 가장 손쉽게 이용하는 산책로를 찾아 벤치마킹하는 습관이 들게 됐다.

멀리는 도로 양 옆으로 40년생 빛나무가 2km구간에 빼곡히 늘어서 매년 4월이면 은빛 물결 출렁이는 환상의 빛꽃터널 전북 완주 송광사, 거칠 것 없이 시원한 풍경을 연출하며 보는 이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무주 구천동 나제봉분, 가까이는 철쭉 군락지로 인

책로에 오르면 시민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건강체조를 즐기는 것도 동적골이 아니면 맛볼 수 없는 최고의 프로그램이다.

이처럼 아름다운 동적골에 최근 광주시 동구에서는 철쭉 12만주, 꽃잔디 3천 700주를 심었다. 5월이면 화사한 꽃이 만발할 것이다. 동구 주민들은 철쭉꽃이 첫 개화하는 5월1일 구민 걷기대회에 참여한다는 꿈에 부풀어 있다. 이날 우리 주민들은 휴식의 즐거움과 우아한 철쭉의 자태를 구경하면서 힘찬 발걸음을 재촉할 것이다.

지금이야 5월 1일 행사를 준비하며

## 동적골을 아시나요?

기가 높은 환산 수만리 등을 보면서 우리 시민들도 광주를 떠나지 않고도 가까운 곳에서 그런 낭만과 여유를 즐기는 산책로의 필요성을 필자는 절감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무등산과 같이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광주만큼 멋과 낭만이 깃든 산책로를 친한정적으로 개발해 최고의 브랜드상품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은 지역도 드물다. 그 상상의 밑그림에 가장 어울리는 곳이 다른 아닌 동적골이다.

가장 아름다운 보배는 가장 가까이 있다는 말이 있다. 다만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 가치의 존귀함을 종종 잊고 살 때를 말한다.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을 연상시키는 동적골은 앞면 앞수록 정이 가고 따듯함이 느껴지는 계곡이다. 풍광 또한 호남의 명산 무등산 자락에서도 두 번째 가려면 서러울 정도로 아름답기 그지없다. 깊은 숲과 맑은 계류가 어우러진 광주시민의 최고의 안식처라는 찬사는 조금도 손색이 없다. 동적골 산

뜻과 있지만 여기까지 오는 데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다. 예산 확보도 어려웠지만 열악한 재정 형편에 유휴지였다.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한다는 비판 여론도 적지 않았다. 그 어려운 고비를 거쳐 가려면 유휴 공한지를 활용해 꽃이 피는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길고 깊은 산책로를 만들었으니 이것이 야말로 무등산도 보호하고 건강도 증진시키는 1석2조의 효과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여기에 중심사지구 환경복원사업이 마무리되면 동적골 일대는 운동동 예술의 거리와 연계, 여유로운 문화와 넉넉한 휴식을 함께 즐기는 최고의 문화생활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이다.

이 청정계곡 사이로 흐르는 깨끗하고 시원한 시냇물을 따라 동적골을 걸으면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바로 우리 생활공간 지척에 있음을 깨닫고 큰 행복감이 빠져들 것이다. 녹음이 우거진 오솔길 곳곳에서 싱그러움 배내음이 묻어나는 동적골 산책로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광주시 동구청장)

## 도박의 유혹, 패가망신 부른다

친구가 모임에 갔다가 우연히 카지노에서 돈을 탕다쳐 주위의 말을 듣고 자신도 한 번 해보자는 강원랜드에 갔던 모양이다. 그동안 의무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은 성실한 친구였는데 강원랜드가 그 친구의 인생을 바꿔놓고 말았다. 심심풀이로 시작한 것이 카지노가 강한 승부욕으로 변해 깊은 수렁에 빠져버린 것이다.

친구는 처음에 40만 원을 들여 생긴 처음 블랙잭이라는 것을 해봤고, 150만원 정도 탕다고 한다. 그리고 도박의 유혹에 빠져들고 말았다. "이게 바로 돈버는 거구나, 뼈빠지게 장사판을 뛰어나"고 큰소리 칠 정도였다.

하지만 이것이 돈을 딴 첫 번째 치욕이자 마

지막이었다. 결국 친구는 가진 돈 다 잃고 집에 돌아와 있는 재산까지 털어 그곳에 쓸아부었다.

친구 아내의 부탁으로 그를 데리러 강원랜드에 가봤더니 친구는 밤새 카지노를 하는 눈이 쾅했다. 겁리면 하나로 하루를 때우며 종일 도박장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다. 가장도 내팽개쳐 버린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친구는 빈털터리가 됐고 뒤늦게 후회했지만 잃은 게 너무 많았다. 다행히 이혼하지는 않았지만 그로 인해 지금도 힘겹게 살고 있다. 도박은 패가망신의 길임을 명심합시다 한다.

▲정진혁·광주시 광산구 선암동

# 無等鼓

제 18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이번 선거는 각 정당들의 유권자 무시가 극에 달했다고 할 만큼 당내 후보 확정 등이 유권자들의 기대와는 완전 반관으로 흘러갔다.

그 뿐만이 아니다. 선거 준비로 갈수록 후보간 흡집내기, 고소·고발, 돈살포 의혹 공방 등 각종 불·탈법이 난무해 유권자들의 투표 의욕마저 꺾어놓은 상황이다. 오죽했으면 선관위가 역대 최저 투표율을 우려하며 투표 독려에 나섰다.

하지만 소중한 주권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무시당하던 대해 '매운맛'을 보여주기 위해 서라도 지역과 국가를 위해 일할 참 일꾼 뽑기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참 인물 뽑기와 관련 선관위가 최근 유의를 한 결과를 발표해 관심이다. 유권자들은 매니페스토(참공약 선택하기)의 영향력을 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면서도 정당·후보의 매니페스토 수행 정도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관위는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4개 분야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지수'(VMEI)를 발표했다. '매니페스토 영향력 지수'는 100점 만점에 69.09점으로, '매니페스토 기여평가 지수'(68.43점), '매니페스토 인지·관심 지수'(61.92점)보다 높았다. 그러나 '매니페스토 수행 만족도 지수'는 54.51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매니페스토 영향력 지수'는 정책과 공약 평가결과가 후보 선택 및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나타내고, '매니페스토 인지·관심 지수'는 정당과 후보자의 매니페스토 수행 정도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 정도를 수치화한 것이다. 이는 결국 매니페스토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 및 긍정적 평가에도 정당·후보자들의 매니페스토에 대한 실천력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얘기다.

유권자들은 오늘 투표에서 매니페스토에 대한 실천력이 저조한 후보와 정당을 가려내 매운 맛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김우성 정치부장 wskim@

## 매니페스토 지수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幸祐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가)간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19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F A X> 222-800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매케팅국 2200-521 <F A 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사회 1부 2200-618	체육팀 2200-690		
사회 2부 222-4267	조사부 2200-570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